

# 순천대 약학대학, 약초원 환경 개선 사업 완료

### 천연물 소재 발굴·구성원 휴식 위한 학습 공간 재탄생 교육혁신본부·시설과 협조 통해 교육 시설 모습 갖춰

순천대학교 약학대학은 최근 약용식물과 각종 활동 시설 보안을 통해 약초원이 천연물 소재 발굴과 구성원 휴식을 위한 학습 공간으로 재탄생하였다고 밝혔다.

2010년 순천대학교 약학대학 설립 당시 정원배정 신청서 계획에 따라 약용식물원으로 설립 계획되었던 약초원은, 2019년 인문예술대학 건물 측면 유휴부지 1500㎡(약 500평) 입안에 공간을 확보하며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2019년 8월 잡목을 제거하고 2020년 식물 표본 간 구획 및 관찰로 확보를 위하여 보행로를 만들었으며, 교육혁신본부와 시설과의 협조를 통해 수도시설과 농자재 보관창고 및 울타리를 설치하며 점차 교육 시설의 모습을 갖추었다.

공간 조성 이후, 순천대학교 약학과는 2021년 순천, 광양 지역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학과-고교연계 SCNU 찾아오는 전공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약초원을 활용한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수목 부족과 수업 대기 공간 미비, 관찰로 보행 안전 위험이 따르는 등 교육 현장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순천대 약학대학은 2021학년도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약초원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지난달 28일 마무리하였다.

보행 계단과, 파라솔 및 벤치, 나무급수 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벌나무·업나무·가죽나무 등 다양한 목본을 식재하여 약초원 환경을 크게 개선한 결과 현재는 약용 식물 120여 종을 관찰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하였다. 순천대학교 약학대학 이민아 약초원장(약학과)은 "약초원이 조성 완료됨에 따라 순천대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천연물과 관련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공동 연구

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지역 시민들의 국내 자생 약용식물에 대한 이해와 가치를 인식시킬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 장흥군, 전남 농산 어촌 유학 활성화 위해 예산 지원 확정

### 가구당 월 30만원 지원

장흥교육지원청은 전남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장흥군청의 예산 지원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전남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은 서울, 경기 등 타 시·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전남의 맞춤형 교육활동과 온마를 돌봄을 연계한 자연·생태·환경 체험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로 전입하여 배움·살·도전 역량을 키우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행 첫 해부터 뜨거운 관심 속에 추진되고 있는 전라남도교육청의 역점 사업이다.

올해 장흥에서는 작년 대비 3배가 증가한 9명(장평초 7명, 장평중 2명)의 학생들과 학부모가 참여하여 소규모 학교 활성화 및 농어촌 지역 인구 유입에 큰 도움되고 있다.

장흥군의회에서 지난 해 8월 '장흥군 전남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대표 발의: 윤재숙의원)'를 제정하여 본 사업이 장흥 지역에 정착되는 기틀을 마련하였는데, 이번에 장흥군청에서 추가경정예산에 전남농산어촌유학 경비를 총 4,600만원 반영함으로써 본격적인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구체적인 예산 내역은 장흥을 선택하여 전입하는 가구별로 월 30만원의 유학학비를 지원(총 20가구, 3,600만원)하고, 전입해 오는 가족 시설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데 총 1,000만원을 책정하였다.

김성호 교육장은 "전남농산어촌유학은 날이 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드는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에게는 활기찬 학교를 만드는 기회이고, 자연·생태·환경 교육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도시지역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는 새로운 교육 경험을 체득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다."며 "전남의 여러 지자체가 있지만 이렇게 농산어촌유학에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인데, 우리 장흥군에서도 예산지원을 결정함으로써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이 사업에 도시지역 학생과 학부모가 장흥을 선택하여 찾아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장흥군청과 장흥군의회에 감사사를 표했다.

장흥=김도영기자

## 장성교육청,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행사 실시



장성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 직원들에게 장미꽃과 기념품을 나눠주면서 기념일의 의미를 새기는 시간을 가

졌다.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 여건 개선과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쫓겨난 것을 기념한 날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UN에서 공식 지정된 기념일이다.

김철주 교육장은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전 직원이 양성평등 의식을 다시 한번 새기고 차별 없는 직장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여수봉산초, 2022학년도 1학년 '1인 입학식'



여수봉산초등학교에서는 지난 2일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조금 특별한 '1인 입학식'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원래 예정되었던 입학식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 측은 고심 끝에 작은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1인 입학식'을 계획하였다. 학교 측은 입학식 전에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 쓰고 참석하기, 발열 체크, 손소독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안내하였다. 10시부터 20분 간격을 두고 4회에 걸쳐 진행된 1인 입학식을 위하여 입학식 장소로 교장실을 꾸미고 교장실 앞에 학생들의 사진과 이름이 새겨진 현수막을 준비하여 입학생과 가족들이 추억의 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포토존을 마련하였다.

입학식은 교장 선생님의 입학 축하 인사말, 담임선생님 소개, 꽃다발과 축하 선물을 주고

기념 사진 찍기, 담임선생님과 1학년 교실 및 학교 둘러보기 순서로 이루어졌다.

입학 축하 선물은 안전하고 즐겁게 학교에 다니라는 의미로 예쁜 운동화 한 켤레씩을 선물했으며, 집에 가서 가족들과 기쁨을 나누라는 의미로 축하 케이크도 선물로 주었다.

입학식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 모두 학교 측에서 준비한 정성어린 입학식과 학생 한 명 한 명을 배려한 선물과 케이크에 크게 감동하였고, "작은 학교만의 의미있는 입학식이었다"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다.

1학년 담임교사는 "전교생이 모여서 환영해주는 입학식이 되지 못해 조금 아쉬웠고, 내년이나 입학식을 준비해야 해서 힘들었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걸 보니 매년 이렇게 1인 입학식을 운영해도 좋겠어요"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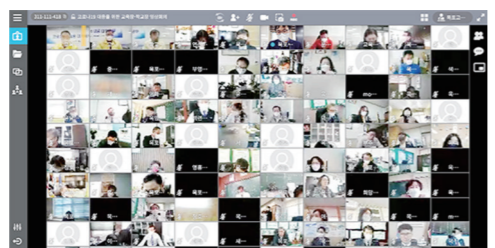
입학 소감을 묻자 김OO학생은 수줍어하며 "너무 좋아요, 학교에 빨리 오고 싶어요"라고 하였으며, 학부모님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학교에서 입학식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고 하였다.

여수봉산초등학교는 전교생 36명의 원도심에 위치한 작은 학교로 이번에 기획한 '1인 입학식'처럼 앞으로도 꾸준히 학생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작은학교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여수=오성호기자

## 목포교육청, 방역대책 긴급 영상회의 개최

목포교육지원청은 최근 목포지역 학생, 교직원 확진자 증가 추세로 인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공백을 예방하고자 지난 7일 관내 교(원)장과 보건교사 15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안정적 학사 운영을 위한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각급학교 준비상황을 살펴보는 유용한 시간이 되었다.

목포=박정수기자

영상회의의 주요내용은 ▲새 학기 적응 주간 운영 방안 ▲조중 돌봄교실 운영 방안 ▲급식 운영 방안 ▲학교방역 강화 대책 등을 안내하고 학사운영 및 방역 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